

## 전북 동부권고원·서해안

###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전북도가 고창~부안의 서해안 해안 지형과 진안~무주의 동부권 고원의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한다.

국가지질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구과학적 중요성과 희귀한 자연 특성, 우수한 경관, 고고학·생태·문화·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환경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이들 2개 권역은 2106년 12월 인증을 목표로 한다.

진안은 큰 자갈이 봉우리(마이산)를 이루고 무주는 화강 편마암(천연기념물 제249호)이 산재해 세계적으로 희귀한 지형이라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또 고창~부안권은 드넓은 갯벌을 비롯한 산악과 해안지대가 어우러져 보존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지역은 무등산을 비롯한 제주도 와 부산, 울릉도·독도, 청송, 강원평화지역 등 6곳이다.

/고창=고훈석기자 ghs@kwangju.co.kr